

DBR

동아비즈니스리뷰

MEDIAKIT

 동아일보

# IT'S PREMIUM MAGAZINE



2008년 창간 이래 최고의 경영 매거진으로 사랑받아온 DBR, 각 산업별 전문가와 주요 대학 교수진, 동아일보 경영 전문 기자가 AI·IT·전략·마케팅·조직 문화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슈를 제공합니다.

# ONLY FOR BUSINESS PROFESSIONAL

“생각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지식 전파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DBR은 조직과 개인이 생각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돕는 보물 창고입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훈 수

“DBR은 신문 기사와 학술지의 중간 지점에서 현장 경험에 기반한 인사이트로  
‘스트리트 스마트(Street Smart)’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GS칼텍스 부사장, 김 정 수

“DBR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 산업 전반과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경영 리더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토스증권 대표이사, 김 승 연









# TREND & INSIGHT

리더십, 문화, 고전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인재 전쟁

## 엔비디아의 '황금 수갑', 직원 몰입도 높여

권기범 East Texas A&M대 인적자원개발학부 교수 Kibum.Kwon@tamuc.edu  
정리=최호진 기자 hojin@donga.com

Article at a Glance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경영 성과와 함께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일터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성과의 핵심에는 고강도 업무 환경 속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만의 차별화된 인재 경영이 있다. 엔비디아는 기획적인 추가 상을 배급으로 RSU(양도 제한 주식)와 ESPP(직원 주식매수제도)와 같은 주식 기반 보상을 우수 인재들에 대한 강력한 '황금 수갑(Golden handcuff)'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위계질서나 형식적 보고 체계 대신 핵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잰스 황 CEO의 파격적 경영 스타일은 비전 리더로서의 존재감과 실용주의적 경영 철학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1 '상성전지 515명, 엔비디아 278명'... 삼성은 엔비디아에서 278명 데려와, 조선일보, 2024.6.19.
- 2 '상전-하이닉스 수백명, 미디어 크론 아직...' 인제유출에 K반도체 초비상, 매일경제, 2024.3.8.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치열한 인재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파격적인 보상 패키지와 함께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AI 혁명을 주도할 성장 기회, 그리고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의 다양한 직원가치 제안(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을 제시하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편집자주

HR 전문가 권기범 교수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재 경영 전략을 분석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인재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어가기 바랍니다.

경에 한창이다. 스타 창업자와 CEO들이 직접 영입에 나서지는 것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스타트업의 사업이나 서비스 또는 전체 임직원 영입보다는 핵심 개발자 등 소수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 인수(Acqui-hiring)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전쟁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삼성 전자 출신 임직원 515명이 엔비디아로 이직해 근무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매년 3위에 머물렀던 마이크론이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 있는 HBM(High Bandwidth Memory)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 대거 이직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재 유출의 심각성은 현직자들의 이직을 넘어 미래 세대의 두뇌 유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박사급 인재의 절반가량, 많은 것들이 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산업 관련 인재에 대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인재 부족이 심각한데,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산업 관련 인재에 대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인재 부족이 심각한데,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산업 관련 인재에 대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인재 경영의 핵심은 '직원 몰입'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고서들은 직원 몰입(Employee engagement)에 관한 섹션을 독립적으로 다루며 직원 몰입을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노력과 인적자본 관련 성과 지표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직원 몰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랜드 도구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많은 기업이 직원 몰입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본에 과감히 투자해 생산성을 높인 뒤 이를 다시 인적자본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우수 인재들 역시 자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

아 인건비가 주요 비용이지만 엔비디아 기본 보상으로 현금성 인건비 부담이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실적에 힘에도 엔비디아의 인건비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임직원들 역시 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한 주가 상승이 보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주식 기반 보상은 회사의 성장률과 직접 공유하는 수단이자 빅테크 기업이 채택하는 새로운 동기부여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원들이 회사와 자정도가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에서 일하는 높은 수준의 직원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 인재 경영의 리더십

단순 금전적 보상만이 엔비디아 직원 몰입을 끌어내고 있는 건 아니다. 개인의 경력 성장이라는 동기부여 요인은 여전히 직원 몰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일



December 2024 Issue 1 121

한 달에 두 번 **깊이 있는 지식**을 선물합니다.

MAGAZINE

**연간 24호**

격 주 발행

**매호 46,000부**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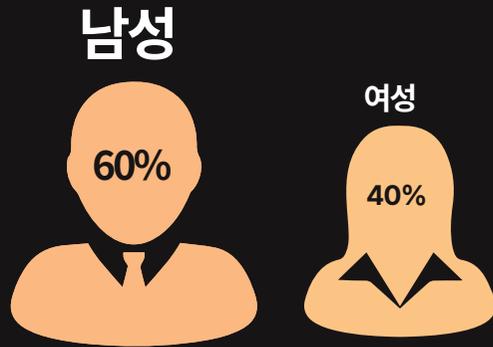
**220,000**

홈페이지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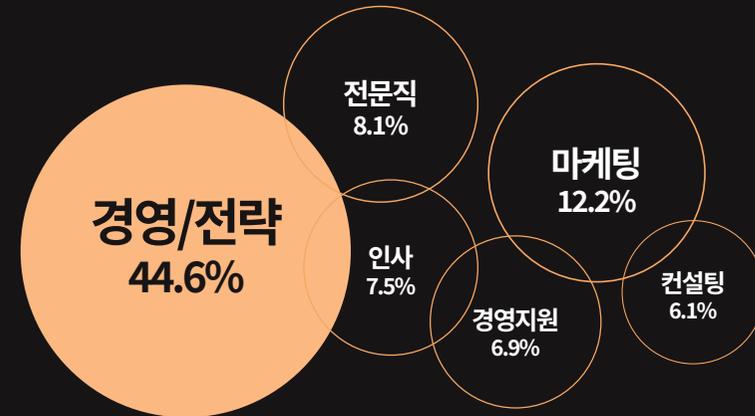
**500,000**

홈페이지 월 평균 페이지뷰(PV)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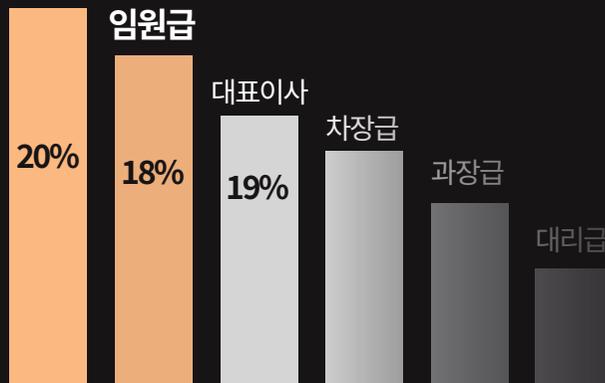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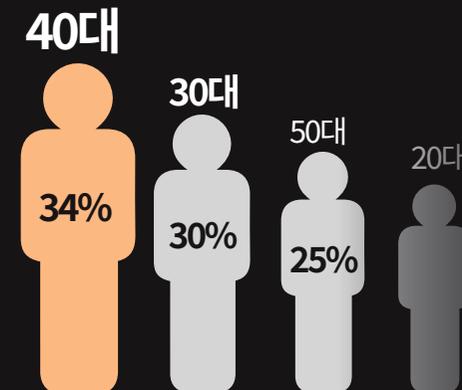


직급

팀장/부장



연령





## 기업구독 18,000부

### 주요 기업

-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 **SK 그룹** (SK하이닉스, SKT, SK이노베이션),
- **현대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등)
- **LG그룹**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 CNS 등) \
- **롯데그룹** (롯데물산, 롯데제과 등)
- **GS그룹** (GS칼텍스, GS리테일, GS건설 등)
- **CJ그룹** (CJ제일제당,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네이버, 신세계,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한화, KT, 쿠팡, 아모레퍼시픽, SPC, LS, 코오롱, 농심, 두산, LF, 엔씨소프트, KT&G, 교보생명, 동아제약, 하이트진로, 풀무원, 에스원, 유한양행, 녹십자홀딩스, 코스맥스비티아이, 넷마블, 르노코리아자동차, 삼양, 동서식품, 대우건설, 한국조선해양, 도레이첨단소재, 메타갤럭시아, OCI, 진에어, 한글과컴퓨터, 한국인삼공사 등

### 금융업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KB금융지주, 한국투자신탁운용,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 삼성화재,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KB손해보험

### 공기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 경영·경제 전문가

- 한국경제인협회 CEO 조찬 세미나,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 전략배포 4,000부

### 5성급 호텔

- 서울신라, 웨스턴조선, 인터컨티넨탈, 워커히, 롯데, 더플라자, 하얏트리젠시인천, 웨라톤그랜드워커히, 임페리얼팰리스, 노보텔, 리베라

### 병원 및 건강검진센터

- 연세세브란스, 고려대 건강진단센터, 서울순천향대 건강증진센터, 강북삼성건강검진센터, 건국대병원 헬스케어센터,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한국의료재단 IFC검진센터, 우리원헬스케어, KMI 광화문, KMI 여의도, KMI 강남 외 60곳

### 주요 골프장

- 화산컨트리클럽, 한성컨트리클럽,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 지산, 중부, 인천국제, 안성, 리베라, 남촌 남부컨트리, 기흥컨트리, 남서울, 88, 서서울, 금강레저, 수원CC,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 외 80곳

## 대학교(MBA 포함) 4,000부

-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송실대, 세종대, 한동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외 65곳

## 개인독자 15,000부

## 서점 5,000부

# DBR 콘텐츠 기반 매체별 버리에이션을 제공합니다.

## MAGAZINE

격 주 발행되는  
프리미엄 매거진



## FORUMS

연말을 밝히는  
국내 최대비즈니스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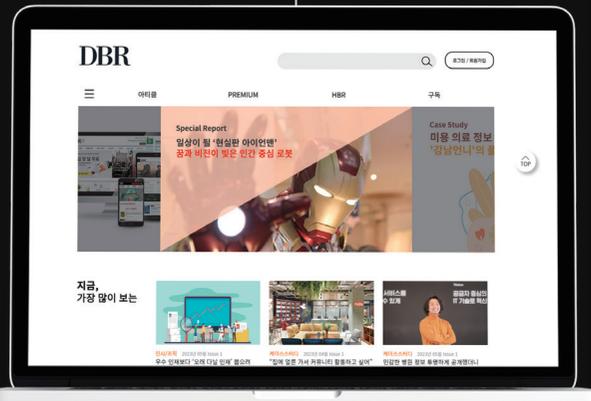
## AI

경영 전문 챗봇과  
시 요약 서비스



## ONLINE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디지털 아티클



## SNS

인스타그램  
콘텐츠



# 국내 주요 인사 2,000명 이상 참석하는 국내 최대 비즈니스 포럼

## 동아비즈니스포럼

장관급 정부 인사  
대기업 CEO 및 임직원  
국내 외 대학 교수  
경제 단체 대표

2,000명 이상 참석

## 동아럭셔리포럼

국내외 럭셔리 명품 브랜드  
CEO 및 주요 마케팅 담당자

100명 이상 참석

# VIP 대상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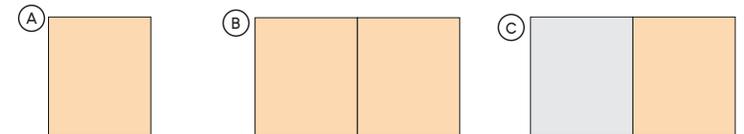
- 타겟** 동아비즈니스포럼 참석자 2,000명 주요 대기업 중간관리자 이상, 주요 대학 교수 등
- 특장점** 동아비즈니스포럼은 모든 참석자가 행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영상 광고에 노출되어 압도적인 주목도를 이끌어냅니다.  
※ 모든 참석자에게 DBR, HBR 12월호 증정
- 형태** 동영상(오디오 포함) 15초 또는 20초
- 노출 시간** 식전 15분, 점심시간 1시간, 네트워킹 세션 15분
- 노출 영역** 동아비즈니스포럼 메인 행사장 디스플레이

동아비즈니스리뷰는 다양한 브랜드 접촉점을 제공합니다.  
귀사 브랜드와 VIP 마케팅,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한 전략적 배포, 공동 이벤트 등 최고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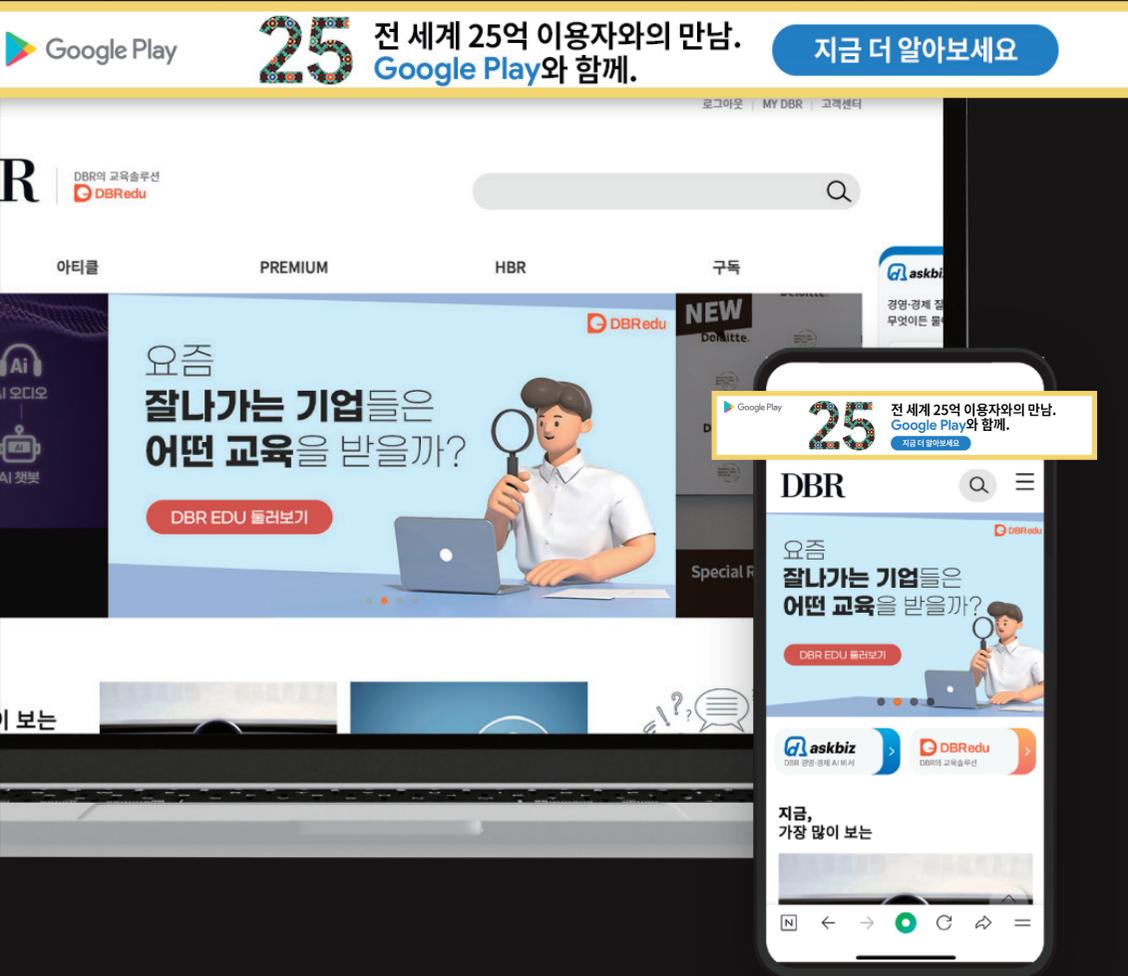
# DBR MAGAZINE ADVERTISING RATES



상품 구분		단가 (단위: 원 / VAT 별도)
A	Outside back cover (표지 4)	15,000,000
	Inside Back Cover (표지3)	10,000,000
Inside Front Cover DPS (표지 2+대면)		15,000,000
B	1st DPS	14,000,000
	2nd DPS	13,000,000
Single Page Facing T.O.C (목차대면)		6,000,000
Premium 지면 (DBR컬럼, 판권대면, Editor's letter)		5,000,000
C	Single Page (기사대면)	4,000,000
	Advertorial (기사식 광고)	4,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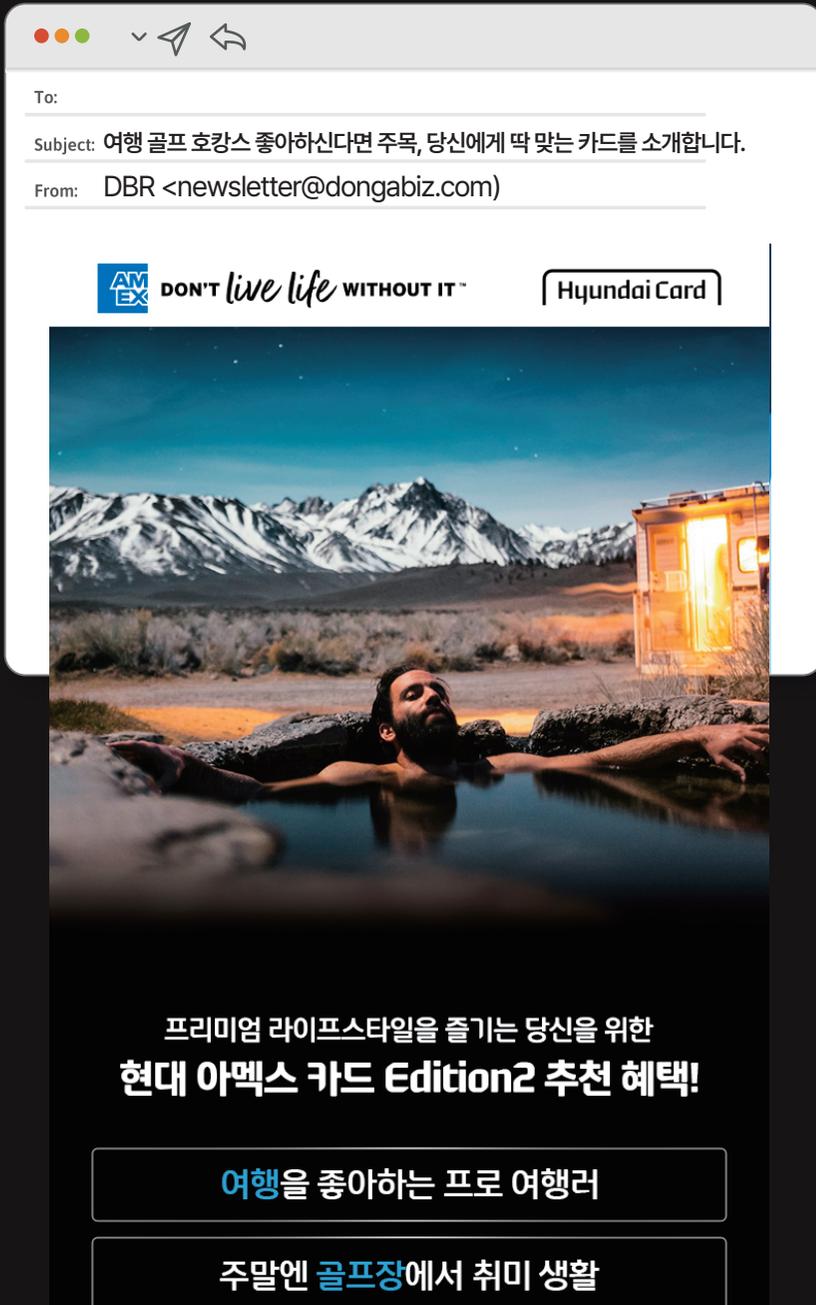
# DBR ONLINE ADVERTISING RATES



## DBR 홈페이지 탑배너

타겟팅	3050세 임직원 및 DBR 웹 회원
예상 노출 수	500,000뷰 / 1개월
평균 클릭율	0.5%
디바이스	PC, Mobile
광고비	1개월 300만원(VAT별도)
노출 영역	DBR PC, Mobile 모든 페이지 고정 광고 노출
소재 사이즈	PC : 1110 × 80 px MO : 720 × 120 px

# DBR EDM ADVERTISING RATES



## DBR E-DM 광고

타겟팅	3050세 임직원 및 DBR 웹 회원
예상 발송 수	56,000명
예상 오픈율	10%
부킹 가능 일정	월-화 : 13:00 수-금 : 09:00 or 13:00 (택 1)
소재 사이즈	가로 700 x 세로 무제한 (HTML)
광고비	E-DM 1회 100만 원(VAT 별도) * 퍼블리싱 불가 시 1회 20만 원 추가 총 120만 원(VAT 별도)
비고	연간 광고주 할인 적용 or DBR 탑배너 추가 제공



DBR

 동아일보

매거진 지면 광고 문의  
김주현 부장  
jj0417@donga.com  
02-361-1502

온라인 배너, EDM 광고 문의  
김준연 본부장  
jy7879@dongamedian.com  
02-6380-7222

마케팅 제휴 문의  
양민석 과장  
yms@donga.com